

■ 2024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 회의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14:00 ~ 17:30
- 회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 예술공동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예술위원회와 MOU 체결('22.11.30)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공동의 기금 조성을 통해 공통 주제(환경적 지속가능성, 평등, 다양성, 포용성)를 기반으로 한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북미 지역 내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 협업사업은 발표를 전제로 하는 단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양국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어 공동창제작 발표를 통해 확장성 있는 교류를 지원합니다. 그간의 리서치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를 계획하여 성과를 고도화하거나, 오랜시간 동안 양국의 교류를 준비하던 단체들이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공동창제작의 여건을 마련하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6명의 심의위원들은 총 신청접수 56건 중 행정결격 6건을 제외한 50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40%, 사업 우수성 및 교류 타당성 40%, 국제적 기대효과 20%)에 따라 지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리서치단계에 이어, 2024년 협업사업단계를 맞이한 2년차 사업이나, 2023년 리서치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우선 고려하거나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으며, 본 사업에 제출된 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목적을 상기하여, 양국 협업의 충실성과 결과물의 지원타당성 등 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6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는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목적에 주목하였으며,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협업의 타당성 및 충실성입니다. 협업이 자문, 초청, 공간 지원 등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공동 창제작의 영역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제작과정

과 결과물의 내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균형있는 협력이 이루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제시된 그간의 성과와 주요활동을 토대로 발표를 전제로 한 협업 결과물의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설계의 현실성입니다. 예산 유동성이 큰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안인 만큼 사업 내용의 목적에 맞게 세부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캐나다 측의 지원예산과 지원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사용목적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본 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신청 예술인·단체들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준비한 과정을 신청서에 담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 예술인·단체의 예산산출 내역은 현실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본질은 쌍방향 교류에 의의가 있기에, 제한적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현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협력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선정 예술인·단체는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해외 진출의 외연 확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